

품사론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실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뒀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고 [일꼬]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ㄹ**인데 발음이 같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풋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짜를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짜	무엇이 같았나
읽고 [일꼬] ↔ 닥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순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나, 사이시옷이나
돋보기 ↔ 돛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땅에 묻어 ↔ 길을 묻어	규칙이나 ㄷ 불규칙이나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나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품사론

이 책이 답하는 질문

이 말은 무엇일까

'새'와 '먼'은 둘 다 뒤의 명사를 꾸밈니다. 그런데 하나는 관형사고 하나는 형용사예요. '날이 밝다'와 '날이 밝는다'는 같은 '밝다'인데 품사가 다릅니다.

말에 이름을 붙이는 일, 그게 품사론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갈리는 자리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책만의 성격 — 기준이 셋이고, 순서가 있다

2권에서 기준이 두 개였다면, 이 책은 세 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형태 > 기능 > 의미

순서가 있습니다. 2 → 5 → 9로 갑니다. 한 번에 아홉 개로 나누려 하면 머리가 터지지만, 이 순서로 가면 각 단계가 단순해집니다.

이 책만의 성격 — '같은 글자, 다른 정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책에는 짝이 유난히 많습니다. 겉모습이 똑같은데 정체가 갈리는 것들이요.

짝	갈리는 것
새 옷 / 먼 훗날	관형사 / 형용사 활용형
사과 셋 / 세 사람	수사 / 관형사
먹을 만큼 / 나만큼	의존명사 / 조사
날이 밝다 / 날이 밝는다	형용사 / 동사
철수와 영희 / 영희와 싸웠다	접속조사 / 부사격조사
그림을 그림	명사 / 동사
땅에 묻어 / 질문을 물어	규칙 / 불규칙

전부 활용시켜 보거나, 무엇을 거느리는지 보거나, 뜻이 다른지 확인하면 갈립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구간	무엇
0 ~ 0.2	세 기준과 위계 — 뼈대
0.3 ~ 0.6	9품사를 다섯 갈래로 훑기
0.7 ~ 0.9	용언 심화 — 어미, 접사와 어미, 활용
1	품사와 문장 성분

0.9 활용이 가장 두껍습니다. 특히 불규칙 활용은 **규칙과 짝을 지어** 실었어요. 벗다 / 잇다, 닫다 / 듣다, 입다 / 뚫다처럼 나란히 놓고 봐야 왜 '불규칙'인지 알 수 있거든요.

고비는 어디인가

0.9 불규칙 활용입니다. 양이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요령이 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뜻이 다르면 활용도 다르다**는 걸 알면 절반이 정리됩니다.

땅에 묻다 → 묻어 (규칙) / 질문을 묻다 → 물어 (불규칙)
등이 굽다 → 굽어 (규칙) / 고기를 굽다 → 구워 (불규칙)
버튼을 누르다 → 눌러 / 빗줄이 누르다 → 누르러

뜻이 다르면 별개의 단어입니다. 별개니까 활용도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 단계가 특별한 이유

이 시리즈는 **마지막에 지엽적인 것**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1단계는 다릅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 중요도로 치면 별 다섯이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품사를 다 배운 뒤에야 의미가 생기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방을 무엇으로 쓸지 정하는 것**입니다. 벽과 문은 그대로인데 쓰임이 정해지죠. 그리고 그게 **다음 권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앞 권·다음 권과의 관계

2권 0.6에서 '그림을 그림'을 다루다 **"품사 판정은 3권에서"**라고 미뤄뒀죠. 그게 이 책 **0.8**입니다.

1권 0.9의 **— 탈락·ㄹ 탈락**은 이 책 0.9에서 "규칙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문장 성분**은 **4권 통사론 편**의 출발점입니다.

앞 권을 안 보셨어도 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이 책 안에서 다시 세웁니다.

0 기준이 셋이고, 순서가 있다

START

땅 파기

도면의 범례부터 읽습니다. 기호가 셋이고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뤄둬주세요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04에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2권을 보신 분은 이 이야기로 시작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문법은 온통 기준이다.

같은 것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품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서는 기준이 세 개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형태 > 기능 > 의미

세 기준이 무엇인가

단어를 놓고 세 번 다르게 물어봅니다.

기준	무엇을 묻나	나오는 답
형태	모양이 변하는가	가변어 · 불변어
기능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체언 · 용언 · 관계언 · 수식언 · 독립언
의미	무엇을 나타내는가	명사 · 대명사 · 수사 · 조사 · 동사 · 형용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9품사**는 세 번째 기준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가장 잘게 나눈 것이죠.

왜 순서가 있을까요

큰 덩어리를 먼저 자르고 그 안을 나눕니다. 아홉 개를 한꺼번에 늘어놓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건지 안 보입니다.

① **형태**로 자르면 두 덩이가 나옵니다.

가변어 — 모양이 변함 (먹다 · 먹고 · 먹어 ...)

불변어 — 모양이 안 변함 (하늘 · 새 · 매우 · 어머 ...)

한 번에 크게 갈렸죠.

그런데 불변어 덩어리가 너무 큼니다.

하늘도, 새도, 매우도, 어머도 다 여기 있어요.

더 잘라야 합니다.

② **기능**으로 자릅니다. 문장에서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③ **의미**로 마지막 다듬기를 합니다.

한 번에 9개로 자르려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2 → 5 → 9로 갑니다.

미리 보는 전체 그림

지금 다 이해 못 해도 됩니다.

이런 지도가 있다는 것만 보고 가세요.

형태	기능	의미 (9품사)
불변어	체언	명사 · 대명사 · 수사
불변어	관계언	조사
불변어	수식언	관형사 · 부사
불변어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용언	동사 · 형용사

가변어는 용언 하나뿐입니다. 9품사 중 딱 둘(동사·형용사)만 모양이 변해요. 나머지 일곱은 그대로입니다.

▮ 표에 예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관계언(조사)은 불변어인데, **딱 하나 모양이 변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0.4**에서 만납니다.

확인문제 0

1.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을 순서대로 쓰세요.
2. 각 기준이 무엇을 묻는지 한 줄씩 쓰세요.
3. 9품사는 어느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요?
4. 왜 한 번에 9개로 나누지 않고 $2 \rightarrow 5 \rightarrow 9$ 로 가는지 설명하세요.
5. 가변어에 속하는 품사는 무엇인가요?

START CLEAR

기준이 셋이고, 순서가 있다

다음 01 · 9품사 한 바퀴

남은 것 10 / 10

0.1 9품사 한 바퀴

자재 목록을 한 번 훑습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홉 개 이름과 대표 예시만** 봅니다.

자세한 건 0.3부터 하나씩 다루고요.

아홉 개

품사	무엇을	예
명사	사물·사람의 이름	하늘 · 바다 · 학교 · 사랑 · 김철수
대명사	이름을 대신함	나 · 너 · 우리 · 이것 · 거기 · 누구
수사	수량·순서	하나 · 둘 · 첫째 · 셋째
조사	관계를 표시	이/가 · 을/를 · 은/는 · 에 · 도
동사	움직임	먹다 · 가다 · 읽다 · 웃다
형용사	상태·성질	예쁘다 · 높다 · 붉다 · 차갑다
관형사	체언을 꾸밈	새 · 헌 · 모든 · 온갖 · 한 · 이
부사	용언 등을 꾸밈	매우 · 아주 · 빨리 · 잘 · 다시
감탄사	느낌·부름·대답	어머 · 아이고 · 야 · 응 · 네

한 문장에 다 넣어보면

어머, 저 두 사람이 매우 빨리 걸어간다.

어머	저	두	사람	이	매우	걸어간다
감탄사	관형사	관형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한 문장 안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이름은 그 **하는 일에 붙인** 것이고요.

헛갈리기 쉬운 짝 미리 보기

이 책에서 계속 나올 대조예요.

지금은 "**이런 게 갈린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짝	무엇이 갈리나	어디서
새 옷 / 먼 훗날	관형사 / 형용사 활용형	0.5
사과 셋 / 세 사람	수사 / 관형사	0.3
먹을 만큼 / 나만큼	의존명사 / 조사	0.3
날이 밝다 / 날이 밝는다	형용사 / 동사	0.5
그림 을 그림	명사 / 동사	0.8
묻어 / 물어	규칙 / 불규칙	0.9

전부 글자는 같은데 정체가 다릅니다. 2권에서 '군밤'과 '군소리'가 갈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확인문제 0.1

1. 9품사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2. 각 품사의 예를 두 개씩 쓰세요.
3. "어머, 저 두 사람이 매우 빨리 걸어간다"에서 관형사를 모두 찾으세요.
4. 위 문장에서 조사는 몇 개인가요?

STAGE 01 CLEAR

9품사 한 바퀴

다음 02 · 형태와 기능 — 크게 두 번 나누기

남은 것 9 / 10

0.2 형태와 기능 — 크게 두 번 나누기

자재를 크게 분류합니다. 둘로 나누고, 다섯으로 나눕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두 번 나눕니다.

형태로 한 번, 기능으로 한 번.

첫 번째 — 형태

가변어(可變語) — 변은 변한다. 모양이 변하는 말.

불변어(不變語) — 존은 아니다. 모양이 안 변하는 말.

확인하는 법 — 뒤에 뭘 붙여보기

'-다'를 떼고 '-고', '-니', '-어'를 붙여보세요.

붙으면 가변어입니다.

단어	붙여보면	판정
먹다	먹고 · 먹으니 · 먹어 ✓	가변어
예쁘다	예쁘고 · 예쁘니 · 예뻐 ✓	가변어
하늘	하늘고? · 하늘니? ×	불변어
새	새고? · 새니? ×	불변어
매우	매우고? ×	불변어

가변어는 동사와 형용사뿐입니다. 9품사 중 둘이에요.

두 번째 — 기능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로 나눕니다.
다섯 갈래가 나와요.

이름	한자 뜻	하는 일	품사
체언(體言)	몸통	문장의 몸통 . 주어·목적어가 됨	명사 · 대명사 · 수사
용언(用言)	쓰임	서술 을 함. 모양이 변함	동사 · 형용사
관계언(關係言)	관계	체언에 붙어 관계를 표시	조사
수식언(修飾言)	꾸밈	다른 말을 꾸밈	관형사 · 부사
독립언(獨立言)	홀로 섬	다른 말과 관계없이 홀로	감탄사

이름이 곧 설명입니다.
체언은 몸통, 용언은 쓰임, 관계언은 관계, 수식언은 꾸밈, 독립언은 홀로.

다섯 갈래를 한 문장에서

어머, 새 옷이 참 예쁘다.

어머	새	옷	이	참	예쁘다
독립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수식언	용언

'어머'를 빼도 문장이 멀쩡하죠.
그게 **독립언**입니다. 홀로 떠 있어요.

확인문제 0.2

1. 가변어와 불변어를 한자 뜻으로 구별하세요.
2. 가변어에 속하는 품사 둘을 쓰세요.
3. 기능에 따른 다섯 갈래 이름과 한자 뜻을 쓰세요.
4. 다음을 다섯 갈래로 분류하세요.
하늘 · 먹다 · 이/가 · 매우 · 어머 · 새 · 나 · 예쁘다
5. "어머, 새 옷이 참 예쁘다"에서 수식언을 모두 찾으세요.

STAGE 02 CLEAR

형태와 기능 — 크게 두 번 나누기

다음 03 · 체언 — 명사·대명사·수사

남은 것 8 / 10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품사를 나누는 세 기준과 그 순서를 적고, 그 기준으로 갈라지는 갈래들을 그려보세요. 9품사 이름까지 다 나오면 이 단계는 끝난 겁니다.

힌트 — 형태는 돌, 기능은 다섯, 의미는 아홉으로 갈라집니다.

형태

기능

의미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세 기준과 그 순서 0

☐ 2 → 5 → 9로 가는 이유 0

☐ 가변어에 속하는 품사 0

☐ 9품사 이름 전부 0.1

☐ 각 품사의 예 두 개씩 0.1

☐ 가변어·불변어 판별법 0.2

☐ 기능에 따른 다섯 갈래와 한자 뜻 0.2

☐ 형태·기능·의미의 대응 표 0

제로투원 국어문법 · 품사론

20

윤선생

0.3 체언 — 명사·대명사·수사

기둥이 될 자재를 봅니다. 문장의 몸통입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체언(體言)은 문장의 몸통입니다.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는 말이에요.

명사 — 이름

갈래	뜻	예
보통명사	같은 종류에 두루 쓰임	사람 · 나무 · 학교 · 도시 · 강
고유명사	하나뿐인 것의 이름	김철수 · 서울 · 한강 · 백두산 · 신라

고유명사는 **하나뿐이라 복수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되는데 "서울들"은 이상하죠.

이걸 **판별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셋 중 하나라도 붙으면 보통명사예요.

붙여보는 것	보통명사	고유명사
-들 (복수)	사람들 ✓	× 서울들
수 관형사	세 도시 ✓	× 세 서울
지시 관형사	이 학교 ✓	× 이 신라

하나뿐인 것은 셀 수도, 가리켜 고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 **다만 뜻이 달라지면 보통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반에 **세 명의 뉴턴**이 있다" — 이때 '뉴턴'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천재**'라는 뜻의 **보통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수 관형사가 붙을 수 있어요. **말은 쓰이는 자리에 따라 정체가 바뀝니다.**

★ 의존명사 — 혼자 못 서는 명사

명사인데 앞에 꾸미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래	뜻	예
단위성 의존명사	세는 단위	명 · 마리 · 그루 · 켄레 · 자루 · 채 · 벌 · 권
형식성 의존명사	형식만 있음	것 · 수 · 바 · 따름 · 만큼 · 뿐 · 데 · 줄

사람 셋 → 세 명
 나무 셋 → 세 그루
 강아지 셋 → 세 마리
 신발 셋 → 세 켄레
 책 셋 → 세 권

"명"이라고만 하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앞에 수가 와야 합니다.

그래도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이고 단어입니다. 앞에 꾸미는 말이 필요할 뿐 그 자체는 명사예요. 그래서 띄어 씁니다.

★ 같은 '만큼', 다른 정체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문장	'만큼'의 정체	띄어쓰기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명사 (앞이 관형어)	띄어 씀
나만큼 해봐	조사 (앞이 체언)	붙여 씀

앞에 무엇이 오는지가 갈라냅니다. 관형어(먹을)가 오면 의존명사, 체언(나)이 오면 조사예요.

같은 방식으로 갈리는 것들:

의존명사 (띄어 씀)	조사 (붙여 씀)
아는 대로 말해	법대로 하자
노력한 만큼 얻는다	너만큼 컸다
웃을 뿐이다	셋뿐이다

대명사 — 이름을 대신함

갈래	예
인칭대명사	나 · 저 · 우리 · 너 · 당신 · 그 · 그녀
지시대명사	이것 · 그것 · 저것 · 여기 · 거기 · 저기

인칭대명사에는 세 가지 특별한 쓰임이 있습니다.

이름	뜻	예
미지칭(未知稱)	아직 모르는 대상	누구세요? (모르니까 물음)
부정칭(不定稱)	정해지지 않은 대상	누구나 올 수 있다 / 아무나
재귀칭(再歸稱)	앞에 나온 말로 되돌아감	철수는 자기를 사랑한다

미지칭과 부정칭은 둘 다 '누구'를 씁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를 가리키면 미지칭, 아무나 다를 가리키면 부정칭이고요.

누구세요? →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 → 미지칭
누구든 오세요 → 특정인이 아니라 아무나 → 부정칭

재귀칭(再歸)의 歸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주어로 다시 돌아가는 대명사예요.

철수는 자기 방으로 갔다. → '자기' = 철수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다. → '당신' = 할아버지 (높임 재귀칭)

수사 — 수량과 순서

갈래	뜻	예
양수사	얼마나 (量)	하나 · 둘 · 셋 · 일 · 이 · 삼
서수사	몇 번째 (序)	첫째 · 둘째 · 제일 · 제이

★ 수사와 수 관형사

이것도 시험 단골입니다.

문장	정체	왜
사과 셋이 있다	수사	조사 '이'가 붙음
세 사람이 왔다	관형사	뒤에 명사를 꾸밈

조사가 붙으면 수사, 뒤의 명사를 꾸미면 관형사입니다.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수사	관형사
하나	한 (한 사람)
둘	두 (두 사람)
셋	세 (세 사람)
넷	네 (네 사람)
스물	스무 (스무 사람)

다섯부터는 모양이 같습니다. 다섯 · 여섯 · 일곱 — 수사도 관형사도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붙었는지 봐야 합니다.

★ 관형사로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표의 오른쪽을 보세요. **한 · 두 · 세 · 네 · 스무**는 짝이 되는 수사가 없습니다.

"세를 꺼냈다" × · "스무가 왔다" × — 안 되죠. 조사를 붙일 수 없으니 **수사가 아닙니다**.

반면 '하나 · 둘 · 셋'은 둘 다 됩니다. "**하나를** 꺼냈다"(수사) · "**한 사람**"(관형사)

그리고 '**둘째**'처럼 **서수사는 대개 관형사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둘째 주"처럼요.

★ 수사의 별난 점 두 가지

① 조사 없이 부사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과를 **하나** 먹었다.

'하나'에 조사가 안 붙었죠.

그렇다고 뒷말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를** 먹었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수사예요.

직접 넣어보세요. "사과를 **하나를** 먹었다" — 조금 어색하지만 뜻은 통합니다. 조사를 넣어 말이 되면 수사입니다.

㉓ 사람을 가리키면 명사가 됩니다

문장	정체
첫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수사 — 순서
우리 집 첫째가 대학에 갔다	명사 — 사람

둘째 ·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가리키면 수사, 사람을 가리키면 명사예요.

💡 '제일 · 제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접두사 제-(第)가 붙은 것입니다. 수사에도 접사가 붙을 수 있어요.

확인문제 0.3

1. 체언에 속하는 품사 셋을 쓰세요.
2.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3. 고유명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세요.
4. 단위성 의존명사를 다섯 개 쓰세요.
5. "먹을 만큼 먹어라"와 "나만큼 해봐"의 '만큼'을 각각 판정하고, 띄어쓰기가 다른 이유를 쓰세요.
6. 미지칭·부정칭·재귀칭을 각각 예와 함께 설명하세요.
7. "사과 셋이 있다"와 "세 사람이 왔다"의 밑줄 친 말의 품사를 각각 쓰세요.
8. "첫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와 "우리 집 첫째가 대학에 갔다"의 '첫째'를 각각 판정하세요.
9. '세'와 '스무'는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쓰세요.

STAGE 03 CLEAR

체언 — 명사·대명사·수사

다음 04 · 관계언 — 조사

남은 것 7 / 10

0.4 관계언 — 조사

★★★★★

CHAPTER 04 / 10

기둥 세우기

자재를 잇는 연결부를 봅니다. 작지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회수 앞에서 비워둔 1가지를 여기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 시조 한 편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시조 시인이 조사를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애당초 나서는 건 꿈꾸지도 않았다
종의 팔자 타고나 말고빠만 잡았다
그래도 격이 있나니 내 이름은 격 조사.
— 문무학, 「품사 다시 읽기 4 - 조사」

세 줄에 조사의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애당초 나서는 건 꿈꾸지도 않았다" — 조사는 혼자 못 섭니다. 반드시 앞말에 붙어야 해요.
"종의 팔자 타고나 말고빠만 잡았다" — 조사는 뜻이 없습니다. 체언을 끌어 자리에 앉히는 일만 해요.
"그래도 격이 있나니 내 이름은 격 조사" — 그런데 그 자리를 정하는 건 조사입니다.

마지막 줄이 반전입니다. 앞의 두 줄은 조사가 하찮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셋째 줄에서 '격'이라는 말로 뒤집어요. '격'은 체면이기도 하고 문법 용어이기도 합니다.

조사는 뜻이 없지만 자리를 정합니다

"철수가 영희를 보았다"와 "철수를 영희가 보았다" — 단어는 똑같은데 누가 봤는지가 반대입니다. 바꾼 건 조사 두 개뿐이고요.

뜻이 없는 말이 뜻을 결정합니다. 이게 조사입니다.

조사(助詞)의 助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체언을 도와 문장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말이에요.

조사는 세 갈래입니다.

격조사 — 문장에서의 자격(자리)을 표시

접속조사 — 말과 말을 이어줌

보조사 — 특별한 뜻을 더함

격조사 — 자리를 정해준다

격(格)은 자격입니다. 이 말이 문장에서 무슨 자격으로 있는지를 표시해요.

격	조사	예
주격	이/가 · 께서 · 에서	철수가 왔다 / 아버지께서 오셨다
목적격	을/를	밥을 먹었다
보격	이/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서술격	이다	그는 학생이다
관형격	의	나의 책
부사격	에 · 에서 · 에게 · 께 · 로/으로 · 로서 · 로써 · 와/과	학교에 간다
호격	아/야 · (이)여	철수야!

★ 주격 '에서'와 부사격 '에서'

같은 '에서'인데 갈립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 주격 (학교가 연 것)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 → 부사격 (출발점)

단체가 주어일 때만 주격 '에서'입니다. 정부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 관형격 '의' — 붙이기만 하고 뜻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격조사는 자리를 정해주고 끝입니다.

그런데 '의'는 앞뒤를 묶어놓기만 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예	앞뒤 관계
어머니의 신발	소유자 — 소유물
선생님의 충고	주체 — 행위
국민의 절반	전체 — 부분
축하의 박수	목적 — 수단
강철의 여인	속성 — 대상

'의' 하나가 이 관계를 다 떠맡습니다. 그래서 앞뒤 말만 보고 관계를 짐작해야 해요.

💡 '의'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집의 밖 → 집 밖 · 나의 고향 → 내 고향

대명사와 만나면 아예 줄어듭니다. 나의 → 내, 저의 → 제, 너의 → 네.

생략해도 관형어라는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가 관계를 특정해주지 않으니, 한 표현이 여러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어머니가 찍은 사진일까요, 어머니를 찍은 사진일까요, 어머니가 가진 사진일까요?

→ 4권 문장론에서 중의적 표현으로 다룹니다.

★ 보격은 딱 두 자리뿐입니다

'이/가'가 붙었다고 다 주격이 아닙니다.

'되다'와 '아니다' 앞에서는 보격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보격

그는 학생이 아니다 → 보격

물이 얼었다 → 주격

'되다·아니다' 앞이면 보격. 이 둘 말고는 없습니다.

★ 서술격 조사 '이다' — 조사인데 활용합니다

0단계에서 미뤘던 예외가 이겁니다.

조사는 불변어입니다.

그런데 '이다' 하나만 모양이 변해요.

학생**이다** · 학생**이고** · 학생**이며** · 학생**이니** · 학생**이어서**

용언처럼 활용하죠.

그래서 이름도 '서술격'입니다. 조사인데 서술어 노릇을 하는 거예요.

9품사 중 가변어는 동사·형용사 둘뿐인데, 조사 '이다'가 예외적으로 변합니다.

접속조사 — 이어준다

조사	예
와/과	사과 와 배
하고	사과 하고 배
(이)랑	사과 랑 배
(이)며	사과 며 배 며

★ '와/과'는 두 얼굴입니다

문장	정체
철수 와 영희가 왔다	접속조사 (둘을 이음)
철수는 영희 와 싸웠다	부사격조사 (상대)

빠졌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접속조사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왔다 → "철수가 왔다" ✓ 성립 → **접속조사**

철수는 영희와 싸웠다 → "철수는 싸웠다" — 누구랑? 어색 → **부사격**

보조사 — 뜻을 더한다

격조사가 **자리**를 알려준다면, 보조사는 **뜻**을 더해요.

보조사	더하는 뜻	예
은/는	대조·주제	밥은 먹었다 (다른 건 몰라도)
도	역시	나도 갈래
만	한정	너만 와라
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
부터	시작	지금부터 하자
조차	심지어	너조차 그러니
마저	남은 것까지	하나마저 잃었다
밖에	그것뿐	하나밖에 없다

★ 보조사는 자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밥이 맛있다 → '이'가 **주어**라고 알려줌
 밥을 먹었다 → '을'이 **목적어**라고 알려줌
 밥은 먹었다 →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알 수 없음**

'은/는'은 자리를 안 알려줍니다. 대신 "**다른 건 몰라도 밥은**"이라는 뜻을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보조사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붙습니다.

나도 밥도 빨리도 먹었다만

주어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에도, 부사 자리에도, 심지어 어미 뒤에도 붙죠.

★ 겹쳐 붙습니다

격조사는 하나만 붙지만 보조사는 겹칩니다.

모양	예	무엇이 겹쳤나
격조사 + 격조사	말로써는... · 여기에서의 만남	로써 + 는... ▲ · 에서 (자리) + 의 (자리)
보조사 + 격조사	소설만을 읽지 마라	만 (뜻) + 을 (자리)
격조사 + 보조사	아침에만 운동했다	에 (자리) + 만 (뜻)
보조사 + 보조사	라면마저도 품질이네	마저 + 도 — 둘 다 뜻
격조사 자리를 차지	형도 동생을 믿었다	'이/가' 자리에 도

격조사끼리도 겹칩니다. '여기에서의'는 부사격 '에서'에 관형격 '의'가 붙은 거예요.

'만을'을 보세요. '만'이 한정적 뜻을 더하고, 문법적 관계는 '을'이 담당합니다. 둘이 하는 일이 갈려 있어요.

'마저도'는 둘 다 보조사입니다. '마저'를 격조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자리를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죠.

'형도 동생을 믿었다'에는 주격조사가 아예 없습니다. 보조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도 '형'이 주어라는 건 압니다. 자리로 아는 거죠.

💡 뜻을 더하는 것과 자리를 정하는 것은 따로 씹니다.
붙어 있는 조사를 하나씩 떼어 "이건 뜻이냐 자리냐"를 물으세요.

'아침에만'을 보면 보조사가 조사 뒤에도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조사는 체언 뒤에만 오는 게 아니예요. 부사 뒤에도, 어미 뒤에도 붙습니다.

★ 보조사와 모양이 같은 것들

같은 글자가 조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0.6 관형사와 3권 전체에서 계속 나온 그 문제예요.

글자	보조사	다른 것
대로	나대로 계획이 있다 (체언 뒤)	아는 대로 말해 — 의존 명사
뿐	너뿐이다 (체언 뒤)	웃을 뿐이다 — 의존 명사
만	너만 와라 (체언 뒤)	이해할 만은 하다 — 의존 명사
든지	사과든지 배든지 (체언 뒤)	부르든지 추든지 — 어미

앞에 무엇이 오느냐만 보면 됩니다.

체언 뒤 → 조사
관형어 뒤 → 의존 명사
어간 뒤 → 어미

띄어쓰기가 여기서 같습니다.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 써요. 6권 0.4에서 다시 만납니다.

확인문제 0.4

1. 조사의 세 갈래를 쓰고 각각의 역할을 한 줄로 설명하세요.
2. 격조사 일곱 가지를 쓰세요.
3.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와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의 '에서'를 각각 판정하세요.
4. 보격조사는 어떤 말 앞에서만 나타나나요?
5. '이다'가 특별한 이유는?
6. "철수와 영희가 왔다"와 "철수는 영희와 싸웠다"의 '와'를 각각 판정하고 방법을 쓰세요.
7.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정적 차이를 설명하세요.
8. 관형격 '의'가 다른 격조사와 다른 점을 쓰고, '의'로 이어지는 관계 세 가지를 예와 함께 드세요.
9. 다음에서 겹친 조사를 하나씩 떼고 각각 '뜻'인지 '자리'인지 판정하세요.
소설만을 · 아침에만 · 라면마저도
10. '나대로'와 '아는 대로'의 '대로'를 각각 판정하고, 가르는 법을 쓰세요.

STAGE 04 CLEAR

관계언 — 조사

다음 05 · 용언 — 동사와 형용사

남은 것 6 / 10

체언 세 갈래를 그리고, 그 아래 **조사**를 붙이세요. 조사는 세 갈래로 갈라지고, 격조사는 다시 일곱으로 갈라집니다.

힌트 — 격조사 일곱은 **문장 성분**과 짝을 이룹니다.

체언

조사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체언 세 갈래 0.3
- ☐ 단위성·형식성 의존명사 0.3
- ☐ '만큼'이 의존명사도 조사도 되는 이유 0.3
- ☐ 미지칭·부정칭·재귀칭 0.3
- ☐ 수사와 수 관형사 구별 0.3
- ☐ 격조사 일곱 0.4
- ☐ 주격 '에서'가 쓰이는 조건 0.4
- ☐ 보격이 나타나는 자리 0.4
- ☐ '이다'가 특별한 이유 0.4
- ☐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정적 차이 0.4

0.5 용언 — 동사와 형용사

움직이는 부분을 봅니다. 아홉 중 둘만 모양이 변합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용언(用言)은 모양이 변하는 말입니다. 9품사 중 동사와 형용사 둘뿐이에요.

동사 — 움직임을 나타냄 (먹다 · 가다 · 읽다 · 웃다 · 뛰다)

형용사 — 상태·성질을 나타냄 (예쁘다 · 높다 · 붉다 · 차갑다)

하위 갈래

	갈래	뜻	예
동사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음	가다 · 뛰다 · 웃다 · 자다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함	먹다 · 읽다 · 잡다 · 보다
형용사	성상 형용사	성질·상태	예쁘다 · 높다 · 차갑다
형용사	지시 형용사	가리킴	이러하다 · 그러하다 · 어떠하다

타동사(他動詞)의 他는 남입니다. 자기 말고 남(목적어)이 있어야 하는 동사예요. 자동사(自動詞)의 自는 스스로. 혼자서 됩니다.

★ 동사와 형용사 구별 — 하나의 원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외울 게 여섯 개나 되죠.

붙여보는 것	동사	형용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ㄴ-	먹는다 ✓	예쁘 ㄴ 다 ×
관형사형 어미 -는	먹는 사람 ✓	예쁘 는 사람 ×
감탄형 어미 -는구나	먹는구나 ✓	예쁘 는 구나 ×
진행 -고 있다	먹고 있다 ✓	예쁘 고 있다 ×
의도·목적 -려/-러	먹으려 ✓	예쁘 려 ×
명령·청유 -어라/-자	먹어라 ✓	예쁘 어 라 ×

여섯 개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로 묶입니다.

형용사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진행 중일 수 없고, 하려고 할 수 없고, 하라고 시킬 수 없습니다.

'먹다'는 동작이라 지금 하는 중일 수 있고,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고, 하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예쁘다'는 그냥 그런 상태라, 셋 다 안 되고요.

의미를 알면 여섯 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 "행복하자"는 왜 어법에 안 맞을까요 ★★★★★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연말 인사로도 씁니다. 그런데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위에서 확인했죠.

상태는 **하자고 권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형용사에 넣어 보면 대번에 이상해져요.

예쁘자 × · 좁자 × · 맑자 ×

'행복하자'만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하도 많이 써서입니다. 구조는 '예쁘자'와 똑같아요.

같은 이유로 어법에 어긋나는 말들

자주 쓰는 말	왜 안 되나
건강하자	'건강하다'는 형용사
정직하자	'정직하다'는 형용사
행복해라	청유형뿐 아니라 명령형도 안 됩니다

'말다'로 전부 검산됩니다

	기본형	현재 시제	명령형	청유형	-(으)러	-(으)려
먹다 (동사)	먹다	먹는다 ✓	먹어라 ✓	먹자 ✓	먹으러 ✓	먹으려 ✓
말다 (형용사)	말다	말다 ×	말아라 ×	말자 ×	말으러 ×	말으려 ×

형용사 칸이 통째로 ×입니다.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줄이 통째로 막혀 있다**고 기억하세요.

💡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행복하게 지내자" · "건강하게 지내자" — 형용사를 부사형으로 바꾸고, 청유형은 동사('지내다')가 받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청유형을 감당할 품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예요.

⚠️ 다만 알아두세요

어법에 어긋나는데도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생활에서 쓴다고 틀렸다고 지적할 일은 아닙니다.

규범과 현실이 어긋나는 자리 — 6권 규범론에서 계속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 어미가 붙는 자리도 갈립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어울리는 어미가 다릅니다. 잘못 붙이면 어색해져요.

어색한 표현	바른 표현	왜
상처를 받은가 보다	상처를 받았나 보다	'받다'는 동사 — 동사에는 -나
연못은 아직 맑아 있다	연못은 아직 맑다	'말다'는 형용사 — 상태에 -아 있다를 못 붙임

'-ㄴ'가 보다'는 형용사, '-나 보다'는 동사

예쁜가 보다 ✓ (형용사) · 먹나 보다 ✓ (동사)
예쁘나 보다 × · 먹은가 보다 ×

'-아/어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동작이 끝난 뒤 그 상태가 이어짐을 뜻해요. 그런데 형용사는 원래 상태니까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꽃이 피어 있다 ✓ (피다 = 동사) · 하늘이 맑아 있다 × (맑다 = 형용사)

💡 품사를 모르면 왜 어색한지 설명을 못 합니다.

"'맑아 있다'는 좀 이상한데..."까지는 누구나 느낍니다. '맑다'가 형용사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가 다른 지점이에요. 문법은 감을 근거로 바꾸는 일입니다.

★ 한 가지 더 — 시제로도 갈립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관형사형 어미 '-는'이요.

형용사에는 못 붙습니다.

그럼 형용사는 현재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어미	동사	형용사
-는	현재 — 먹는 밥	못 붙음 ×
-(으)ㄴ	과거 — 먹은 밥	현재 — 푸른 하늘
-(으)ㄹ	미래 — 먹을 밥	미래 — 푸를 하늘

같은 '-(으)ㄴ'인데 동사에 붙으면 과거, 형용사에 붙으면 현재입니다.

형용사가 '-는'을 못 쓰니까 '-(으)ㄴ'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상태에는 '하는 중'이 없으니 현재형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쓰면 품사를 알 수 있습니다.

문장	'-(으)ㄴ'의 시제	품사
집에 간 사람	과거	동사
우리가 이긴 시합	과거	동사
하늘이 푸른 날	현재	형용사
교실이 깨끗한 상태	현재	형용사

★ '이긴 시합'을 형용사라고 하면 틀립니다.

'-(으)ㄴ'이 붙었으니 형용사 같아 보이지만, '이기다'는 동작이고 그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미 이긴 시합이잖아요.
어미 모양만 보면 안 되고 시제를 따져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는'을 붙여보세요.

이기는 시합 ✓ → 되니까 동사
푸르는 하늘 × → 안 되니까 형용사

이 이야기는 4권 문장론의 시간 표현에서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는 시제를 정하는 쪽에서 보게 됩니다.

★ 같은 단어인데 둘 다 되는 것들

여기가 진짜입니다. 글자가 같은데 문장에 따라 품사가 갈립니다.

형용사	동사
날이 밝다 (환한 상태)	날이 밝는다 (환해지는 중)
키가 크다 (큰 상태)	키가 큰다 (자라는 중)
물이 많다 (많은 상태)	—
얼굴이 붉다 (붉은 상태)	얼굴이 붉는다 ? ×

'-는'을 붙여보면 갈립니다. 붙으면 동사, 안 붙으면 형용사.

날이 **밝는다** ✓ → 이때는 동사 (밝아지는 과정)
날이 **밝다** → 이때는 형용사 (밝은 상태)

같은 '밝다'인데 문장이 다르면 품사가 다릅니다.

★ 항상 동사인 것들

의미상 상태 같은데 **동사**인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단어	확인
늡다	늡는다 ✓ → 동사
늡다	늡는다 ✓ → 동사
맞다	맞는다 ✓ → 동사
모자라다	모자라 _ㄴ 다 ✓ → 동사

'늡다'는 늡은 상태 같지만, **늡어가는 과정**이라 동사입니다.

"늡는다"가 되죠.

★ '있다'와 '없다'

특이합니다.

있다 —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됨

나 여기 **있는다** (동사, 머무름) / 책이 **있다** (형용사, 존재)

없다 — 형용사만

없는다 ×

본용언과 보조 용언

용언이 둘 나란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앞의 것이 본용언**, **뒤의 것이 보조 용언**입니다.

본용언 — 주어를 **주되게** 서술함

보조 용언 —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함. 혼자서는 서술어가 못 됨

보조 용언	더하는 뜻	예
-고 있다	진행	먹고 있다
-어 가다	진행	죽어 가다
-어 버리다	완료	먹어 버리다
-어 보다	시도	먹어 보다
-어 주다	봉사	도와 주다
-어 놓다	결과 유지	열어 놓다
-고 싶다	희망	보고 싶다
-지 않다	부정	먹지 않다

2권 「서시」에서 본 '죽어 가는'의 '가-'가 바로 보조 용언입니다.

★ 같은 단어가 본용언도 되고 보조 용언도 됩니다

'보다'가 대표적이에요.

영화를 **보다** → 본용언 (눈으로 보는 행위)
 먹어 **보다** → 보조 용언 (시도)

단어를 외우면 안 되고 자리를 봐야 합니다.

★ 판별법 둘 — 넣어보기와 바꿔보기

뜻만으로 애매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보조 용언은 앞말과 한 덩어리라서 그 사이를 벌리면 어색해집니다.

① 사이에 다른 성분을 넣어본다
 먹어 보다 → 먹어 **아주** 보다 × → 보조 용언
 오고 가다 → 오고 **천천히** 가다 ✓ → 둘 다 본용언

② 연결어미 '-아서/-어서 · -고서'를 붙여본다
 남아 주다 → 남아**서** 주다 × → 보조 용언
 오고 가다 → 오**고서** 가다 ✓ → 둘 다 본용언

'-아서/-고서'는 앞뒤 일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보조 용언은 앞말과 하나의 일이라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색해집니다.

💡 '오고 가다'는 보조 용언이 아닙니다. 오는 일과 가는 일이 각각 있으니까요.
형태가 비슷하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둘을 별려보면 같습니다.**

✂️ **띄어쓰기는 6권에서 다룹니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확인문제 0.5

1.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한 줄로 쓰세요.
2. 자동사와 타동사를 한자 뜻으로 구별하고 예를 두 개씩 쓰세요.
3.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여섯 가지 방법이 **하나의 원리**로 묶이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4. "날이 밝다"와 "날이 밝는다"의 품사를 각각 쓰세요.
5. '늡다'가 동사인 이유를 확인 방법과 함께 쓰세요.
6. 보조 용언을 세 개 쓰고 각각 더하는 뜻을 쓰세요.
 - 6-1.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가르는 판별법 두 가지를 쓰세요.
 - 6-2. '오고 가다'의 '가다'는 보조 용언인가요? 판별법으로 보이세요.
7. '집에 간 사람'과 '하늘이 푸른 날'의 '-(으)ㄴ'은 시제가 다릅니다. 각각 쓰고 품사를 판정하세요.
8. '우리가 이긴 시합'의 '이기다'를 형용사라고 하면 왜 틀린가요?
9. '-는'을 붙여보는 것이 왜 품사 판별에 쓰이나요?

STAGE 05 CLEAR

용언 — 동사와 형용사

다음 06 · 수식언·독립언 — 관형사·부사·감탄사

남은 것 5 / 10

맛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홉 갈래를 세웠으니 이제 활용입니다

CHAPTER 06	수식언·독립언 — 관형사·부사·감탄사
CHAPTER 07	어미의 체계
CHAPTER 08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
CHAPTER 09	활용 — 규칙과 불규칙
CHAPTER 10	품사와 문장 성분

여기까지 **형태** → **기능** → **의미** 순서로 아홉 갈래를 세웠습니다.

뒤부터가 이 책의 물건입니다.

CHAPTER 09가 통째로 **활용**입니다.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을 가르는 법, ㅎ 받침이 품사로 갈리는 법,
'좋아[조아]'는 왜 불규칙이 아닌지까지.

그리고 CHAPTER 10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갈라 4권으로 넘깁니다.

전체 108쪽 · 정답과 해설 · 백지 인출 페이지

